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당의 3대전략에 대한 사상

로승일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는 혁명적당의 생명이며 이것은 우리 당의 3대전략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전략을 제일가는 무기로 틀어쥐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매진할것이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할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당의 3대전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인민중시에 관한 사상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해나가는 결정적력량이다. 혁명과 건설에 제일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나가는것도 인민대중이고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밀고나가는데서 제일 큰 역할을 수행해나가는것도 인민대중이다.

혁명과 건설은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이익을 끝까지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것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해야만 그 어떤 우여곡절도 없이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인민처럼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대중은 혁명하는 당이 의거해야 할 기본력량이다. 혁명하는 당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을 때 가장 존엄있는 정치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해야만 부닥치는 모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이 장장 70여년세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올수 있는것은 인민을 하늘같은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왔기때문이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우리 당은 나아갈 침로를 정할 때마다, 준엄한 난국에 부닥칠 때마다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였으며 인민의 진정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곤 하였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미제가 강요한 3년간의 전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재더미만 남았던 빈터우에서 전후복구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천리마를 탄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려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한데 이어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로동당시대로 빛내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이 우리 공화국을 엿해보려고 발광적으로 책동하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인민은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험난한 역경속에서도 억척같이 일떠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세계에 빛내일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애국의 더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혁혁한 승리와 성과들을 달성하였으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영웅적신화들을 련이어 창조하였다.

우리 당이 언제나 인민대중을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해온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당을 진정 자기 운명의 등대로, 어머니로 믿고 따르게 되었으며 이 땅우에는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펼쳐지게 되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이다.

인민중시의 정치를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이 땅우에는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더욱 활짝 꽃피나게 될것이며 우리 인민은 멀지 않은 앞날에 이 세상 만복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인민,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가장 긍지높은 인민으로 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당의 3대전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다음으로 군대중시에 관한 사상이다.

혁명과 건설은 항시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반혁명세력과의 치렬한 힘의 대결속에서 진행된다.

힘의 정책에 매여달리는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세력과의 투쟁에서는 말과 글, 시위와 같은것이 통할수 없다. 적수공권으로는 언제 가도 정의와 진리가 승리할수 없고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세력의 책동을 제압분쇄할수 있는 강위력한 혁명무력이 없이는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하는 당이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양양으로 이끌어나가자면 군대를 중시하여야 한다. 군대중시에 혁명적당의 불패의 힘이 있다.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강력한 혁명군대는 혁명하는 당이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세력의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양양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힘이다.

우리 당은 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를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조국과 혁명을 철옹성같이 보위하며 인민의 안녕과 생명재산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불패의 군력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우리 당은 혁명무력건설과 나라의 방위력강화를 제일차적인 국사로 내세웠으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강위력한 군력에 의거하여 미제와의 계속되는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였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자위로선과 선군정치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매에 쳐물리칠수 있는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나게 되었으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부단히 강화되어 우리 조국은 금성철벽의 요새로 전변되었다.

우리 조국이 무진막강한 군력을 가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됨으로써 지난날 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수난받던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숙명론은 이미 과거사로 되었으며 우리 공화국은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세계만방에 높이 떨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일심단결의 위력과 혁혁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군력에 의거하여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고 조국과 인민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침략과 전쟁으로 제 몸집을 비육시켜온 횡포한 미제와 직접 맞서 수치스러운 패배만을 안기고 제국주의의 강도적인 제재와 봉쇄도 강행돌파해나가는 우리 군대의 불굴의 기상과 힘은 원썩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있다.

우리 당은 오늘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이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으며 조국의 푸른 하늘과 인민의 안녕을 억척같이 사수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것을 당당히 선언하고있다.

군대중시를 우리 당의 변함없는 전략적로선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우리 혁명은 그 어떤 원썬들의 도전도 단호히 쳐물리치고 최후승리의 직선주로를 따라 더욱 억세게 전진해나갈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당의 3대전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다음으로 청년중시에 관한 사상이다.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꽃이며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 혁명의 계승자들이다.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는 조국보위, 인민보위의 맨 앞장에 서있는것도 청년들이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투장들마다에서 비약과 혁신의 봉화를 제일먼저 추켜들고나가는 부대도 다름아닌 청년집단이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나라의 국력을 시위하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서도 선구자, 선도자적역할을 하고있으며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적이며 언제나 량만과 희열에 넘쳐있는 청년들에 의하여 창조되는 문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더욱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신심에 넘쳐 더욱 분발하고 또 분발해나가도록 추동하고있다.

우리 당은 창건 첫 시기부터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고 청년중시를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왔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중시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년대들을 영웅적위훈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왔다.

전당이 일상적으로 청년교양에 힘을 넣고 청년동맹에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대담하게 맡겨주면서 당의 청년전위로 내세워준 믿음과 사랑속에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조국보위초소와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여 피끓는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치였다.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들에는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 인민, 우리 군대와 함께 우리 청년들의 고귀한 피와 땀, 슬기와 지혜도 깃들어있다.

청년들을 떠난 우리 혁명의 어제와 오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선로동당의 남다른 긍지는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담보를 모르고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즐기게 전진하고 비약하고있는것은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나아가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강철의 청년대오, 청년대군이 있기때문이다.

우리 청년들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선물로 마련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세운 자랑찬 청춘대기념비들은 조선로동당의 후비대, 계승자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의 대가 어떻게 굳건히 이어지고있는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과 청년중시정치를 높이 받들어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백만자루, 천만자루품도 아끼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 나라는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대강국으로 위

용떨치고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격전장들마다에서 위대한 당의 손길아래 키워온 청춘의 힘과 지혜,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대오의 전렬에 내세우고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의 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들은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전략을 제일가는 무기로 틀어쥐고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 바쳐나가야 할것이다.